

## 6세기 신라의 재산취득과 상속\*

-냉수리비와 적성비를 중심으로-

서 지 영\*\*

- I. 머리말
- II. 喪服法과 냉수리비의 財
  - 1. ‘二王敎’와 절거리의 재산 취득
  - 2. ‘其第兒斯奴’의 존재와 그 의미
- III. 國法과 적성비의 恩典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지증왕 대 상복법 제정과 포항냉수리신라비의 상속 분쟁은 유교적 가족 질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상복법은 宗法을 기반으로 하는데, 종법은 가족 및 친족집단 내 家父長, 長子の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母와 庶子는 부차적 존재로 격하하였다. 또 宗法적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爲人後嗣’라 불리는 養子 제도가 등장하였고, 양자는 喪禮에서 斬衰三年喪을 하도록 하여 그 집안의 實子로 대우하였다. 이처럼 유교적 종법에 입각한 가족, 친족제도로 변화하면서, 재산 및 상속을 둘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821).

\*\*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sosla1026@naver.com

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냉수리비에서 분쟁은 ‘二王敎’, ‘七王等’의 ‘共論敎’를 통해 판결, 처리되었고, 피상속인과 패소인에 대한 경고는 別敎로 규정되었다. 절거리가 재물을 취득하는 근거가 된 ‘二王敎’는 가족 관계나 재산상속 규정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냉수리비에서 節居利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 ‘其第兒斯奴’를 절거리 다음 피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은 유교의 종법적 질서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아직 나라 안에 통일된 법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단계를 보여준다.

냉수리비에 재산 분쟁은 敎令을 통한 판결, 중앙의 하급 관료인 典事人의 집행, 村主의 최종 처리와 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다. 그러다 6세기 후반 적성비 단계에 이르면, 나라 전체에 통일되게 적용되는 법인 國法 또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는 법인 赤城佃舍法과 같은 법체계를 통해 재산의 분여와 소유권에 관한 확인을 받았다. 또 父母-子女로 구성된 가족공동체가 경제적 단위공동체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가족공동체 내에서 父에서 子로 자연스럽게 재산의 상속이 진행되었다.

◆ 주제어

포항냉수리신라비, 단양적성비, 지증왕, 종법(宗法), 상복법(喪服法),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

## I. 머리말

「포항냉수리신라비」(이하 냉수리비)는 珍而麻村에서 節居利와 末鄒, 斯申支 사이에 財라는 경제적 이득을 두고 벌어진 다툼을 판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碑이다.<sup>1)</sup> 냉수리비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긴 하였으나, 절거리의 재물 취득과 관련되는 ‘二王敎’가 무엇인지, 절거리와 말추, 사신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상속인으로 거론되는 ‘其第兒斯奴’는 어떤 존재인지 등은 아직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절거리가 어떤 인물인지 분명하지 않고, 단지 財, 財物이라고만 되어 있어 비문의 財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었다. 이에 토지와 노비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 또는 토지와 노비를 제외한 금은, 곡식 등의 재화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볼 것인지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sup>2)</sup> 이 가운데 財를 租稅・力役 수취와 관련된 권한으로 보는 견해가<sup>3)</sup> 주목을 받았다. 이 견해는 절거리의 지위,<sup>4)</sup> 珍而麻村이라는 지역과 국가와의 관계<sup>5)</sup>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지도로 갈문왕을 비롯한 중앙의 고위 관등을 보유한 인물들이 ‘七王等’이라 불리며 판결에 참여한 점에서 국가와 밀접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반면 비문의 財는 개인의 사적 소유물인 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 
- 1) 냉수리비 발견 초기 종합적 검토는 韓國古代史研究會編,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참조.
  - 2) 財에 관한 연구성과는 김덕원,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국학연구』 15, 2009 ; 임평섭, 「신라 지증왕의 정국운영과 「포항냉수리신라비」:5세기말~6세기 초 신라의 대내외 정세변화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58, 2021 참조.
  - 3) 朱甫墩,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基礎的 檢討」, 『新羅文化』 6, 1989 ; 주보돈,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2002, 62~63쪽 ; 安秉佑, 「迎日冷水里新羅碑와 5~6세기 新羅의 社會經濟相」,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128쪽 ; 朴香美, 「迎日冷水里碑를 통해 본 5~6世紀 新羅의 財産相續」, 『慶北史學』 17·18, 1995, 28쪽.
  - 4)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20~128쪽.
  - 5) 朱甫墩, 앞의 논문, 1989 ; 주보돈, 앞의 책, 63쪽 ;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28쪽 ;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29쪽.

제기되었다.<sup>6)</sup> 이는 지증왕 대 농업생산력 향상으로 토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관련 분쟁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소지왕 12년(490) 처음으로 市肆를 열어 사방의 재화를 유통하도록 한 것,<sup>7)</sup> 지증왕 10년(509) 京都에 東市를 설치하고,<sup>8)</sup> 이를 관리할 東市典을 설치한 것,<sup>9)</sup> 등 당시 시대적 흐름을 생각한다면 공감할 수 있으나, 財를 토지로 한정된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무렵 신라에서는 殉葬을 금지하고, 喪服法을 제정, 頒行하였다.<sup>10)</sup> 『隋書』와 『北史』에 기록된 신라의 상복제는 왕과 부모 및 처자의 상에는 1년간 복상을 유지[持服]한다고 규정하여,<sup>11)</sup>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간 상복을 입는 고구려, 백제와 차이가 있었다.<sup>12)</sup> 이에 신라의 상복제는<sup>13)</sup> 신라만의 독특한 친족집단의 특성으로 보거나,<sup>14)</sup> 妻子喪이 특별히 규정된 것은 왕실의 一夫一妻의 婚俗이 신라 사회에 확대된 결과로 보기도 했다.<sup>15)</sup> 또 國王喪이 언급된 것은 예제 정립 과정 중 왕실 상장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sup>16)</sup> 상복법을 통해 父母-子女-夫妻로 구성된 유교의 예제적 ‘家’ 개념은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族’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확대된 경제적 공동체가 운영된 것으로 보기도

6) 김덕원, 앞의 논문, 2009, 347~348쪽.

7) 『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2년.

8)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10년.

9) 『三國史記』 권38, 잡지 직관상,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508쪽.

10) 신라의 유교적 가족 윤리에 관한 연구는 이현주, 「신라 유교 가족 윤리의 도입과 변용-상복법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59, 2021 참조.

11)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新羅 및 『北史』 卷88, 列傳83 四夷上 新羅.

12)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百濟 및 『周書』 卷49, 列傳41 異域上 高麗, 『周書』 卷49, 列傳41 異域上 百濟.

13) 지증왕 대 상복법에 관한 연구는 박초롱, 「지증왕·법흥왕대 왕실 상장례 변화와 그 의미 - 지증왕대 상복법 제정·반행(頒行)문제를 중심으로 -」, 『韓國思想史學』 62, 2019 ; 이현주, 앞의 논문, 2021 참조.

14) 金哲煥,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 1, 1968 ; 김철준,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161~162쪽.

15) 서영교, 「신라 지증왕대 喪服法과 一夫一妻制」, 『역사와 세계』 53, 2018, 105쪽.

16) 박초롱, 앞의 논문, 2019, 24~25쪽.

했다.<sup>17)</sup> 이처럼 근래 연구에서 지증왕 대 상복법 제정을 주목한 것은 신라의 사회적 변화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喪服法은 유교 이념과 宗法의 가족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sup>18)</sup> 宗法은 혈연관계를 기초로 공동의 조상을 숭배하고 친족간의 유대와 종족 내부의 長幼, 尊卑, 承繼 및 친족집단 내의 지위와 그 권리, 의무를 규정한 다. 상복은 服裝과 服期를 통해 이러한 종법적 질서를 가시화하였다. 중국에서 상복은 五服親을 통해 長子相續을 전제하였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親族의 범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sup>19)</sup>

신라에서 상복법을 제정한 것은 유교의 종법적 질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sup>20)</sup> 이 무렵 재산과 상속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 중앙에서 敎令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한 냉수리비가 주목된다. 선행 연구에서 냉수리비를 통해 5~6세기 재산상속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지만,<sup>21)</sup> 조세 수취권설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또 냉수리비와 「단양신라적성비」(이하 적성비)의 비교를 통해 財의 실체와 취득을 다룬 연구가 있으나,<sup>22)</sup> 당시 재물에 관한 분쟁이 단지 정치·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여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세기 신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상복법 제정 등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냉수리비와 적성비의 비문 분석을 통해 재산 취득과 승인 및 상속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냉수리비에서는 ‘二王敎’와 계미년 9월 25일에 진행된 ‘七王等’의 ‘共論敎’에 대해 살펴보고, 상속인인 ‘其第兒斯奴’의 존재와 그 재산상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 적성비를 통해 恩典를 통한 가족공

17) 이현주, 앞의 논문, 2021, 40~46쪽.

18) 김용천·장동우, 『中國古代 喪服의 制度와 理念』, 동과서, 2007, 8~9쪽; 노중국, 「신라 中古期 儒學 사상의 수용과 확산」, 『大丘史學』 93, 2008, 12~13쪽; 孔炳奭, 「先秦儒家의 喪服制度」, 『東洋禮學』 30, 2013.

19) 김용천·장동우, 앞의 논문, 2007, 8쪽; 孔炳奭, 앞의 논문, 2013, 42~48쪽.

20) 서영교, 앞의 논문, 2018; 이현주, 앞의 논문, 2021, 45~46쪽.

21)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22) 김덕원, 앞의 논문, 359~360쪽.

동체의 재산취득과 상속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를 통해 6세기 유교에 의한 가족 및 친족의 위계 정립과 상속 관계, 경제적 가족 공동체의 정착과 재산상속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喪服法과 냉수리비의 財

### 1. ‘二王敎’와 절거리의 재산취득

냉수리비는 財에 관한 분쟁과 상속 관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우선 財와 관련된 분쟁과 판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단락을 구분하여<sup>23)</sup>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4)</sup>

「포항냉수리신라비」 판독과 단락

(ㄱ) 斯羅 喙斯夫智王 乃智王 ①此二王<sup>25)</sup>敎用, 珍而麻村 節居利 爲證尔 令其得財 敎耳

(ㄴ) ① 癸未年九月廿五日 沙喙至都盧葛文王 斯德智阿干支 子宿智居伐干支 喙尔夫智壹干支 只心智居伐干支 本彼頭腹智干支 斯彼暮斯智干支 ②此七王等 共論敎, 用前世二王敎 爲證尔 取財物 盡令節居利得之 敎耳.

② 別敎 節居利 若先死後 令其第<sup>26)</sup>兒斯奴 得此財 敎耳.

23) 대체로 4개의 단락으로 구분했지만(金永萬, 「迎日冷水里新羅碑의 語文學의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60~62쪽; 李鍾旭, 「迎日冷水里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統治體制」,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상, 一潮閣, 1994, 113~115쪽 등), 최근에는 3개의 단락, 앞면(敎의 의결내용), 뒷면(典事人의 敎 집행), 뒷면(현지 유력자의 행위)으로 구분(여호규, 「신라 냉수리비와 봉평리비의 단락구성과 서사구조」, 『역사문화연구』 69, 2019, 6~18쪽) 하기도 한다.

24)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1992, 5~6쪽.

25) 전면 7행의 4자는 대부분 ‘王’으로 판독하나, ‘主’(“此七主等”)로 보는 견해(崔光植, 「영일 냉수리비의 석문과 내용분석」, 『三國遺事의 現場的 研究』, 신라문화선양회, 1990, 30~31쪽)도 있다.

26) 대체로 ‘第’로 판독하였으나(鄭求福, 「迎日冷水里新羅碑의 金石學의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35쪽; 金永萬, 앞의 논문, 1990, 63쪽; 金昌鎬, 「迎日冷水里新

- ③ 別敎, 末鄒 斯申支, 此二人, 後莫更澹此財, 若更澹者, 敎其重罪耳.  
 (ㄷ) 典事人 沙喙壹夫智奈麻 到盧弗 須仇休 喙耽須道使心訾公 喙沙夫那 斯利 沙喙  
 蘇那支 此七人 張踪所白了事 煞牛拔誥 故記.  
 (ㄹ) 村主與支干支 須支壹今智 此二人 世中了事 故記.

비문은 크게 (ㄱ)과 (ㄴ)~(ㄹ)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sup>27)</sup> (ㄱ)은 판결의 요지를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과거 ‘二王敎’를 근거로 절거리 사건을 판결하였음을 밝혔고, (ㄴ)~(ㄹ)은 실제 분쟁이 발생한 당시의 판결 절차와 내용, 처리 상황을 기록하였다. 비의 핵심 내용은 (ㄴ)의 ①부분이며, 판결에 참여한 사람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ㄴ)의 ②, ③은 판결에 첨부된 別敎로 상속대상자를 지정하고, 소송에서 진 말추와 사신지에게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종래 ④와 ⑥의 敎를 각각 다른 별개의 판결로 보기도 했다.<sup>28)</sup> (ㄱ)의 斯夫智王은 실성왕,<sup>29)</sup> 乃智王은 눌지왕으로 본다면,<sup>30)</sup> 인간의 보편적 수명으로는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판결이 최소 5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여러 번 행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sup>31)</sup>

羅碑의 建立 年代,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89쪽; 安秉佑, 앞의 논문, 115쪽; 文暉鉉,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部の 性格과 政治運營問題」,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147쪽; ‘弟’(李宇泰, 「迎日冷水里碑의 再檢討 - 財의 性格을 中心으로」, 『新羅文化』 9, 1992; 盧重國, 앞의 책, 1992, 5~6쪽;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로 보기도 한다.

- 27) 朱甫噉(앞의 논문, 1989; 후보돈, 앞의 책, 2002, 58~59쪽)은 시간을 기준으로 전면 1, 2행(ㄱ, 과거의 일)과 전면 3행 이하에서 끝까지(ㄴ)~(ㄹ,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앞부분을 前提文으로 보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8) 朱甫噉, 앞의 논문, 1989; 후보돈, 앞의 책, 2002, 58~59쪽; 金永萬, 앞의 논문, 1990;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16~128쪽.  
 29) 鄭求福, 앞의 논문, 1990; 文暉鉉, 앞의 논문, 1990, 52~53쪽; 朱甫噉, 앞의 논문, 1989; 후보돈, 앞의 책, 2002, 68~69쪽.  
 30) 『三國遺事』 王曆에 訥祗麻立干을 “일명 內只王”이라 한 것을 근거로 한다.(朱甫噉, 앞의 논문, 1989; 후보돈, 앞의 책, 2002, 41쪽; 金永萬, 앞의 논문, 1990, 70쪽; 문경현, 앞의 논문, 1990, 150~151쪽 등)  
 31) 李鍾旭, 앞의 논문, 1994, 112~115쪽; 김덕원, 앞의 논문, 354쪽; 조경란, 「영일냉 수리비문에 보이는 敎의 성격과 구조」, 『한국고대사탐구』 4, 2010, 34쪽.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첫 판결은 절거리가 재물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다음은 절거리의 재물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했고,<sup>32)</sup> 절거리가 죽고 난 뒤 ‘其第兒斯奴’와 말추, 사신지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sup>33)</sup> 또는 절거리의 수명이 90세 이상으로 일반적인 수명보다 길었던 것으로 보기도 했다.<sup>34)</sup>

냉수리비에서 분쟁이 발생한 시점은 지증왕 대인 503년 무렵으로, 이때 절거리와 말추, 사신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비는 이 사건을 판결하고 기록한 것이며, ‘二王敎’는 절거리 사건을 판결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된 이전 왕의 敎令으로 보아야 한다.<sup>35)</sup> 한편 ㉔, ㉕에 보이는 ‘用’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다. ‘用’을 이두적 표현으로 ‘敎用’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두 임금께서 왕교를 내리사’로 파악하기도 하고,<sup>36)</sup> 전치사 ‘~로써’로 ‘진이마촌 절거리의 말로써 증거를 삼아’로 해석하기도 했다.<sup>37)</sup>

그런데 이두적 표현으로 “교를 내리사”로 해석하면, 위 ㉔의 ‘二王敎’와 ㉕의 ‘七王等’의 ‘共論敎’, 모두 절거리를 위해 시차를 달리하여 내린 것이 되므로 올바른 파악이 아니다. ‘用’이 전치사인 ‘以’의 용도로 자주 사용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로써’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하다. 다만 ㉔는 ‘此二王敎用’으로 ‘이 두 왕의 교로써’로, ㉕는 ‘用前世二王敎’로 ‘이전 두 왕의 교로써’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유는 ㉔와 ㉕가 문장은 유사하지만, ‘用’이 수단 또는 도구를 수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㉔, ㉕를 해석해 보면, ㉔는 “이 두 왕의 교로써, 진이마촌 절거리를 위한 증거로 삼아 그 재를 얻도록 교하셨다.”, ㉕는 “이 七王等이 공론하여 교하셨다. 前世二王之

32) 安秉佑, 앞의 논문, 116~128쪽.

33) 朱甫墩, 앞의 논문, 1989 : 주보돈, 앞의 책, 2002, 58~59쪽.

34) 김창석, 『왕권과 법』, 지식산업사, 2020, 72쪽.

35) 여호규, 앞의 논문, 2019, 8~9쪽.

36) 文暲鉉, 앞의 논문, 1990, 148쪽.

37) 金永萬, 앞의 논문, 1990, 63쪽, 71~77쪽.



교로써 증거를 삼아 재물을 모두 절거리가가 얻도록 교하셨다.”가 된다.

그러면, 절거리의 분쟁을 해결하고 재물을 인정해주는 근거가 되었던 (㉠)의 ‘二王敎’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절거리가 재물을 얻게 된 것은 적 성비의 야이차와 같이 나라에 어떤 공훈을 세워 국가로부터 일정한 토지를 하사받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38)</sup> 특히 소지왕 3년(481)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彌秩夫를 공격했을 때 절거리가 활약하여 신라 정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고 추론하였다. 절거리가 토지를 받음으로써 이곳의 토착 세력인 말추, 사신지가 권리를 침해당하여 신라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파악하였다.<sup>39)</sup>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냉수리 비가 세워질 무렵 중앙에서 ‘二王敎’를 근거로 절거리에게 공훈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게 재의 권리를 승인해 주었다. 공적에 따라 恩典을 下賜한 것이라면, 굳이 이전 두 왕의 敎를 따질 필요가 없다. 절거리 행적을 살펴 당시 국왕의 조치로서 토지 등을 하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왕의 恩典 조치에 대해 지방민인 말추, 사신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스럽다. 왕이 사다함에게 토지를 하사한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A-①. 9월에 가야가 배반하였으므로, 왕이 명하여 이사부에게 토벌하게 하고, 사다함이 副將이 되었다. …… 戰功을 논함에 사다함이 으뜸이었으므로, 왕이 良田과 사로잡은 200명을 상으로 주었으나 사다함이 세 번 사양하였다. 왕이 강권하니, 이에 받은 生口는 풀어주어 良人으로서 삼고, 토지는 나누어서 군사들에게 주었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sup>40)</sup>

A-②. 군사가 돌아오자, 왕은 공을 책정하여 加羅 人口 3백 명을 사다함에게 주었다. 이를 받아서 다 풀어 놓아 주고 한 사람도 남겨 놓지 않았다. 또 田地를 내려 주었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왕이 억지로 권하므로 알천의 쓸모없는 땅을 줄 것을

38) 김덕원, 앞의 논문, 349쪽.

39) 김덕원, 앞의 논문, 352~353쪽.

40)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3년.

청할 뿐이었다.<sup>41)</sup>

A-①, ②는 전공을 세운 사다함에게 진흥왕이 良田과 人口를 하사한 내용이다. 후대의 사료이긴 하나, 국왕이 토지와 人口를 恩典으로 하사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영예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사다함은 국왕의 은전에 대해 세 번 사양하다 결국 마지못해 토지와 生口를 받아, 토지는 군사에게 나누어주고, 生口는 양인으로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은전은 국왕의 특별한 조치였으므로 거부하기 힘들었고, 은전을 받은 이후에는 받은 사람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왕의 은전에 대해 말추와 사신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공에 대한 대가로 恩典을 받은 것이라면, 오히려 절거리 先代의 공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성왕과 눌지왕 대 절거리의 先祖가 이 지역에서 어떤 공적을 세워 그 대가로 토지 등의 경제적 혜택을 받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속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말추, 사신지가 절거리의 재물 취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二王敎’는 절거리 선대의 재물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功績 등의 이유로 재물을 획득한 것이 절거리의 선조라면, 비문에 그 선조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합당한데, ‘二王敎’를 통해 재물을 획득한 것은 절거리라고 하고 있으므로, 절거리의 선조와 관련되기보다는 절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敎令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신라의 사례는 아니지만, 기원전 4~5세기 무렵 아티 법정의 연설문을 토대로 아테네의 재산상속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아테네 법률에서는 상속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아들이 없는 경우 養子를 입양하였는데, 이로 인해 형제와 친인척 간의 재산 다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sup>42)</sup> 이유는

41) 『三國史記』 권44, 열전4 사다함.

42) 문혜경, 「고전기 아테네에서 재산상속에 관한 형제-자매 관계」, 『大丘史學』 74, 2004, 273쪽.

아테네의 법은 한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그의 몫을 다른 아들들에게 모두 동등하게 나누도록 했는데, 양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에 따라 형제 및 친인척 간의 재산상속과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라에서도 가족 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상속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유는 신라에서 4~5세기경 철제농기구가 보급되었고,<sup>43)</sup> 6세기에는 우경이 널리 보급되어 농업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변화됨에 따라<sup>44)</sup> 공동체적 토지경작과 소유관계가 변화되어 나갔고, 특히 재산상 재물의 사적 소유를 증대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sup>45)</sup>

또 유교이념의 도입에 따라 종법에 의한 유교적 가족 규범이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거리가 재물을 얻는 근거가 된 ‘二王敎’는 가족관계와 그에 따른 재산의 상속을 규정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 2. ‘其第兒斯奴’의 존재와 그 의미

나물왕 이후 신라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衛頭를 前秦에 사신으로 파견하는<sup>46)</sup> 등 중국에 직접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sup>47)</sup> 이후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sup>48)</sup> 새로운 문물을 본격적으로 수

43) 李賢惠,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 - 4~5세기 新羅社會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8, 1991, 47~48쪽.

44) 李春寧, 「韓國農業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III(科學·技術史)』, 1968; 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 4, 1990;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2006.

45) 李賢惠, 앞의 논문, 1991, 70쪽.

46) 『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3 나물이사금 26년 및 『資治通鑑』 卷104, 晉紀26, 『太平御覽』 卷781, 四夷部2 東夷2 新羅.

47) 이때 신라가 중국에 나아간 것은 독자적인 것이 아닌 고구려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李丙燾,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여호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2000, 65~66쪽).

용하였다. 나물왕은 즉위 후 孝悌에 남다른 행적을 보이는 자에게 職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으며,<sup>49)</sup> 흉년이 든 지역에 曲射를 통해 사면하고 1년 동안의 조세와 공물을 면제해 주었다.<sup>50)</sup> 이것은 나물왕 대 새로운 지배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였음을 보여주며, 그 기저에 유교 이념이 있었다.<sup>51)</sup> 유교 이념에 따른 지배체제 정비는 신라의 가족과 친족 관계 및 상속제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냉수리비에 보이는 財는 토지와 노비를 중심으로 가옥, 가축, 곡식, 금은 등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이해된다.<sup>52)</sup> 이것은 소지왕 12년(490) 市肆를 설치한 뒤,<sup>53)</sup> 지증왕 9년(508) 東市典<sup>54)</sup>, 같은 왕 10년(509) 東市<sup>55)</sup> 등을 설치한 것을 통해 짐작된다. 이때 신라에서는 토지 등 재화에 대한 사적 소유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냉수리비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財, 財物은 토지와 노비, 가축 등을 망라한 재화에 대한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고려, 조선 시대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를 ‘分財記’라 하였고, 상속하는 사람을 ‘財主’라 하였다. 이때 상속하는 재화는 토지와 노비가 다수였으며, 그 외 가옥, 가축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고려, 조선 상속문서에 分財, 財主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냉수리비의 財, 財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때 상속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 있다. 조선 시대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상속을 받으면 官에 신고하여 ‘許與斜給立案’을 받도록 했

48) 李道學, 「高句麗의 落東江流域進出과 新羅·加倭經營」, 『國學研究』 2, 1988, 101~102쪽;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1989, 59~61쪽; 장창은,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3, 2004;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관계』, 신서원, 2008, 103~104쪽.

49) 『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3 나물니사금 2년.

50) 『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3 나물니사금 42년.

51) 서지영, 「신라 상고기 즉위의례와 유학」, 『한국학논총』 58, 2022, 94~102쪽.

52)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28~29쪽.

53) 『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2년.

54) 『三國史記』 권38, 잡지 직관상.

55)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10년.

다.<sup>56)</sup> 대표적인 허여사급입안인 金綏의 분재기를 살펴보면, 김유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5촌 고모의 養子로 길러졌으며, 5촌 고모부 김만균이 별세한 이후 상속이 추진되어 104구의 노비를 상속받았다. 이때 작성된 분재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김유는 노비를 상속받은 2개월 뒤 官에 허여사급입안 신청을 하였고, 관에서는 피상속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안신청서인 所志, 상속문서인 分財記, 피상속인의 확인서인 答通, 증인·필집의 진술서인 招辭 등을 첨부하여 관련 문서를 발급해 주었다.<sup>57)</sup> 이것은 양자가 된 김유에 대한 상속 확인 절차였다. 언제부터 이러한 상속문서를 작성하고, 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냉수리비에 중앙의 敎令과 典事人 및 村主의 확인 절차가 행해진 점을 봤을 때, 냉수리비가 그 시원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냉수리비 10행 4~8자에 절거리 사후 피상속인인 ‘其第兒斯奴’가 기록되어 있다. 10행의 5자는 처음 발견 당시에는 ‘第’로 판독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후 ‘弟’로 판독하는 견해가 나왔다.<sup>58)</sup> 하지만 월성해자 출토 목간과 자형을 비교해 보면 10행 5자는 ‘第’로 보는 것이 옳바르다. 다만 ‘第’가 차례, 집, 아우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 해석상 논란이 된다.

기왕의 연구에서 ‘第’를 아우의 의미로 보아 “그 아우 兒斯奴”, “그 아우의 아들 斯奴”로 보기도 하고,<sup>59)</sup> 또는 ‘차례’, ‘집’의 의미로 “그 집 아들 斯奴” 또는 “그 차례로 아들인 斯奴”<sup>60)</sup>로 보기도 했다. 이러한 선

56) 손계영, 「1516년 金綏 分財記 및 許與斜給立案의 문서 생산 절차와 배경」, 『嶺南學』 22, 2012.

57) 손계영, 앞의 논문, 2012, 198~2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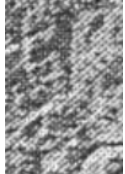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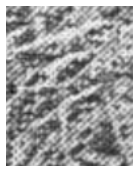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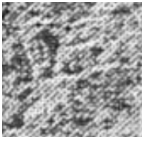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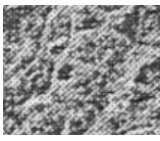
58) 각주 26) 참조.

59) 金永萬, 앞의 논문, 1990, 76~77쪽; 金昌鎬, 앞의 논문, 1990, 95쪽; 宣石悅,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官等·官職問題」,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186쪽; 김창석, 앞의 논문, 2019, 98쪽.



60) 文暲鉉, 앞의 논문, 1990, 253쪽; 鄭求福, 앞의 논문, 1990, 39쪽;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20~21쪽.

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은 절거리의 아우 또는 아들로, 크게 두 견해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냉수리비 10행 4~8자

4자	5자	6자	7자	8자
其	第	兒	斯	奴
				
냉수리비 실물 사진(단국대사학회, 『史學志』 12, 1978)				
				
냉수리비 탁본 사진(단국대사학회, 『史學志』 12, 1978)				

<표 2> 慶州月城垓子 出土木簡 ‘第’

	第 慶州月城垓子 出土木簡 <sup>61)</sup>		第 慶州月城垓子 出土木簡 <sup>62)</sup>
---	------------------------------------	---	------------------------------------

61) 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 『韓國木簡字典』, 2011, 170쪽.

62) 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2011, 170쪽.

그런데 이 무렵 喪服法이 반포된 사실이<sup>63)</sup> 주목된다. 유교에서 상복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형성된 친족집단의 親疏 관계와 신분의 상하에 따라 服期와 喪裝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斬衰, 齊衰 등의 喪裝과 服을 입는 기간을 결합하여 斬衰三年服, 齊衰三年服, 齊衰杖期服, 齊衰不杖期服, 大功九月服 등으로 구분하였다.<sup>64)</sup> 그 중 斬衰服은 오복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상복인데, 옷단을 꿰매지도 못할 충격과 지팡이 없이 몸을 가눌 수 없는 큰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라 한다.<sup>65)</sup> 참취는 자식 중 長子喪에만 허용하여 종법적 원리를 가시화하고, 嫡庶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sup>66)</sup>

B-①. 사람이 죽으면 斂하여 관에 넣고 장사지내고, 封墳을 세운다. 王과 父母 妻子의 喪에는 1년간 持服한다.<sup>67)</sup>

B-②. 사람이 죽으면 집 안에 안치하여 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 부모 및 남편의 喪에는 모두 3년 服을 입고, 형제는 3개월간 입는다. 初喪에는 哭과 泣을 하지만 장사 지낼 때는 북치고 춤추며 풍악을 울리면서 葬送한다. 埋葬이 끝난 뒤 죽은 자가 생존 시에 썼던 衣服과 車馬를 모두 거두어다 무덤 옆에 두는데, 장례에 모였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가져간다.<sup>68)</sup>

B-③.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 나머지 친척에게는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는다.<sup>69)</sup>

63)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지증왕 5년.

64) 김용천·장동우, 앞의 책, 2007, 30쪽.

65) 김용천·장동우, 앞의 책, 2007, 33~53쪽.

66) 王國維, 『觀堂集林』 권10, 「殷周制度論」, 456쪽; 김용천·장동우, 앞의 책, 2007, 39쪽.

67)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新羅, “死有棺斂, 葬起墳陵.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68)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 埋訖, 悉取死者生時服玩車馬置於墓側, 會葬者爭取而去.”

69) 『周書』 卷49, 列傳41 異城上 百濟, “父母及夫死者, 三年治服, 餘親, 則葬訖除之.”

그런데 위 사료 B-①, ②, ③에서 보듯이 신라의 상복은 고구려, 백제와 달리 王과 父母 및 妻子의 상에 1년간 복상했다. 3년 喪이 아닌 1년 喪인 점, 王과 妻子가 언급된 점 등은 고구려, 백제의 상복법과 다르다. 특히 ‘妻子’가 언급된 점이 주목된다. 妻子는 대체로 妻喪과 子喪으로 각각 나뉘어서 보고 있다.<sup>70)</sup> 특히 서영교는 妻는 正妻를, 子는 嫡子를 의미한다고 파악하였다.<sup>71)</sup>

중국에서 五服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周禮』에 보이고,<sup>72)</sup> 『孟子』, 『論語』 등에도 喪期에 대한 구분이 기록되어 있다.<sup>73)</sup> 따라서 중국에서 喪期の 구분은 이른 시기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儀禮』의 「喪服」에 나타난 喪期の 예복과 施服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sup>74)</sup>

<표 3> 服紀·喪葬과 施服 대상

	斬衰三年	齊衰三年	齊衰杖期
父母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父를 위해</li><li>• 後者로 삼아준 父를 위해<sup>75)</sup></li><li>• 許婚한 딸이 아버지를 위해</li><li>• 시집갔던 딸이 이혼을 당해 친정에 돌아와 있을 때 아버지를 위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父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親母를 위해</li><li>• 繼母를 위해</li><li>• 慈母를 위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父가 살아계실 때 母를 위해</li><li>• 出妻之子가 母를 위해</li><li>• 父가 돌아가시고 繼母를 따라갔다면 繼母를 위해</li></ul>
君主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諸侯가 天子를 위해</li><li>• 君을 위해</li><li>• 公·士·大夫의 衆臣이 君主를 위해</li></ul>		

70) 金哲垸, 앞의 논문, 1968 ; 김철준, 앞의 책, 161~162쪽 ; 서영교, 앞의 논문, 2018, 96쪽, 110쪽 ; 이현주, 앞의 논문, 2021, 43쪽.

71) 서영교, 앞의 논문, 2018, 110~112쪽.

72) 『周禮』, 「春官·司服」, “凡喪爲天王斬衰, 爲王后齊衰.”

73) 김용천·장동우, 앞의 책, 2007, 30~31쪽.

74) 김용천·장동우, 앞의 책, 2007, 36~47쪽 참조.

75) ‘爲人後者’로 다른 사람의 後嗣로 들어간 사람이 後嗣로 삼아 준 아버지를 위해 3년



夫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妻가 夫를 위해</li> <li>• 妾이 君을 위해</li> </ul>		• 妻를 위해
長子	• ㉔父가 長子를 위해	• ㉕母가 長子를 위해	

『의례』, 「상복」에서 가장 무거운 단계의 상복과 기간은 斬衰三年이다. 이것은 자식이 父에게, 신하가 君主에게, 부인이 夫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눈에 띄는 것은 父가 長子를 위해서도 施服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 내의 위계는 家父長인 父와 그다음 長子가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㉔, ㉕를 보면, 父가 없을 때는 母를 위해 三年喪을 하지만 父가 살아계실 때는 期年喪을 하도록 하였다. ㉔와 ㉕는 長子喪에 부모 모두 三年服을 하도록 했지만, 아버지는 참최복을, 어머니는 자최복을 입어 부모의 위계를 달리하였다. 이를 통해 상복 규정은 父에서 子로 이어지는 가부장적 권위와 장자의 존재를 服喪과 服期를 통해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sup>76)</sup> 반면 母와 庶子는 부차적 존재가 되었다.

신라에서 王, 父母, 妻子의 상에 1년 持服한다는 것은 『의례』의 「상복」에서 부모, 군주, 장자에 대해 삼년상을 규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服期에서 王과 父母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 妻子도 포함한 것 등은 유사하다. 다만 『의례』, 「상복」에서 母는 父의 생존 여부에 따라 服期가 달랐는데, 이것은 가족의 위계가 더욱 세밀하게 규정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신라의 상복법은 『의례』, 「상복」 규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7)</sup>

신라의 상복 규정에 ‘妻子’라고 하였지만, ‘子’는 모든 자식이 아닌 적장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78)</sup> 이것은 6세기 무렵 신라에서 宗法적 질서와 嫡長子를 중심으로 한 가족 및 친족 관계가 수립되어 가는

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용천, 장동우, 앞의 책, 2007, 151쪽).

76) 김용천·장동우, 앞의 책, 2007, 42~43쪽.

77) 이현주, 앞의 논문, 2021, 45~46쪽.

78) 서영교, 앞의 논문, 2018, 96쪽, 110쪽.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수리비의 ‘其第兒斯奴’는 ‘그 아우 兒斯奴’ 또는 ‘그 아우의 아들 斯奴’와 같이 형제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아닌 ‘그 차례는 兒斯奴’, 또는 ‘그 집 아들 斯奴’와 같이 절거리의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한다.

『의례』의 「상복」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後嗣가 되는 경우, 嫡子와 같은 斬衰三年喪을 하도록 한 것이다.<sup>79)</sup> 入後한 경우, 그 집안의 친자식, 즉 實子로 인정되고, 가족 관계 및 상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절거리와 말추, 사신지의 재산 다툼이 발생한 원인도 이러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따라서 가족관계 및 재산의 상속에 대해 국가의 확인이 필요했고, 이에 국가의 敎令, 典事人의 전달과 집행, 村主의 확인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別敎로 절거리 다음 피상속인을 ‘其第兒斯奴’로 밝혀 절거리의 재산은 그 가족 내에서 상속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말추와 사신지에게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중앙의 판결을 따르도록 경고하였고, 이 사실은 村主에 의해 최종 확인되었다.

냉수리비에 보이는 ‘二王敎’는 종법적 원리에 기반한 가족 구성 및 관계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따라 절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추와 사신지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절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증왕 4년(503) 계미년 9월 25일에 행해진 ‘七王等’의 ‘共論敎’에서 절거리가 재물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재물은 절거리의 아들에게 계승됨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절거리의 재산취득과 상속은 敎令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에 의해 공인되었다. 먼저 분쟁에 대해 ‘七王等’의 ‘共論敎’를 통해 절거리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중앙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층인 典事人에 의해 진이마촌 지역에 전달·집행되었다. 이후 村主가 이 사실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냉수리비는 6세기 무렵 유교의 종법적 가족 관계가 수립되

79) 김용천·장동우, 앞의 책, 2007, 151~152쪽.

는 과정에서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판결과 국가의 공인이라는 체계가 마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 Ⅲ. 國法과 적성비의 恩典

6세기 중반 財의 획득을 보여주는 사료로 적성비가 주목된다.<sup>80)</sup> 적성비의 敎事는 ‘王敎事’와 고위 관료의 ‘節敎事’ 두 부분으로 나뉜다.<sup>81)</sup> ‘王敎事’는 왕이 직접 下敎한 것, ‘節敎事’는 大衆等, 軍主, 幢主 등 敎를 받은 신료들이 下敎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82)</sup> 이 비는 신라의 적성 공략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恩典을 내리고,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sup>83)</sup>

우선 恩典을 받은 사람들과 이들이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4)</sup>

「단양신라적성비」의 恩典의 내용과 대상

(ㄱ) 赤城也尔次[ ]中作善庸懷勲力, 使死人, 是以後, 其妻三[ ]  
[ ]許利之.

80) 적성비에 대한 연구성과는 李宇泰, 「丹陽 新羅 赤城碑 建立의 背景-也尔次の 功績과 恩典의 性格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8, 1992 참조.

81) 王敎事, 節敎事, 別敎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기도 한다(李基白, 「丹陽赤城碑 發見의 意義와 赤城碑 王敎事部分의 檢討」, 『史學志』 12, 1978, 23~24쪽).

82) 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1979; 武田幸男, 『新羅中古期の史的硏究』, 2020, 252~257, 305~309쪽; 朱甫暉, 「丹陽新羅赤城碑의 再檢討: 碑文의 復元과 分析을 中心으로」, 『慶北史學』 7, 1984; 朱보돈, 앞의 책, 2002, 160~161쪽; 양자량, 「6세기 신라 성격에 대한 검토-진흥왕대 비문 분석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53, 2019, 41쪽.

83) 邊太燮, 「丹陽眞興王拓境碑의 建立年代와 性格」, 『史學志』 12, 1978, 35~36쪽; 朱甫暉, 앞의 논문, 1984; 朱보돈, 앞의 책, 2002, 152~153쪽.

84) 판독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2, 35쪽 참조.

85) ‘妻三’을 3명의 처일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李宇泰, 앞의 논문, 1992, 19~20쪽), 아래 ‘四年少女’의 인명을 봤을 때 인명으로 보는 견해(朱甫暉, 앞의 논문, 1984, 20~21쪽)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는 재물을 하사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sup>89)</sup> 또 국법을 운운하는 것은 포상 등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법이 존재했으며, 영역 확장을 통해 새로 확보한 지역에서도 국법을 거론하는 것은 나라 안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법체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sup>90)</sup>

또한 (ㄷ)의 赤城佃舍法에서 赤城이라는 지역 명칭을 붙인 것은, 이 지역에만 한정되어 운영되는 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佃舍는 佃戶,<sup>91)</sup> 또는 田宅이나 田莊으로 보기도 한다.<sup>92)</sup> 赤城佃舍法은 주인이 없는 토지나 신개척지와 같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분급하는 제도로 보기도 하고,<sup>93)</sup> 전지와 전사를 분급하는 법으로<sup>94)</sup>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적성전사법은 적성비에 기록된 명칭만 확인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戰功에 대한 포상으로 토지, 가옥을 분급하는 법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sup>95)</sup> “更赤城烟去使之” 또한 거주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96)</sup>

(ㄷ)의 ㉔에는 “그가 낳은 아들이나 딸이 나이가 어릴지라도”<sup>97)</sup>라고 하여 남녀 구별 없이, 그 자식에게도 은전의 혜택이 주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여기에 “형제”가 함께 언급된 것도 주목된다. 이것은 전쟁 등에서 功을 세웠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처와 자녀, 그 형제들도 포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98)</sup>

89) 鄭求福, 앞의 논문, 1978, 127쪽.

90) 한영화, 「신라 상대의 王命과 「國法」의 성립 과정」, 『역사와 담론』 85, 2018, 75~76쪽.

91) 鄭求福, 앞의 논문, 1978, 127~128쪽.

92) 전덕재, 「신라 中古期 結負制의 시행과 그 기능」, 『韓國古代史研究』 21, 2001, 270~272쪽.

93)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63~34쪽.

94) 홍승우,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82쪽.

95) 武田幸男(앞의 논문, 1979 ; 武田幸男, 앞의 책, 2020, 271~274쪽)은 토지제도의 경영, 농업노동력의 징발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96) 한영화, 앞의 논문, 2018, 75쪽.

97) 李宇泰, 앞의 논문, 1992, 26쪽.

98) 朱甫墩, 앞의 논문, 1984 : 주보돈, 앞의 책, 2002, 164쪽 ; 李宇泰, 앞의 논문, 1992, 25쪽.

C. 眞德王 원년 정미에 백제가 많은 군사로 茂山城·甘勿城·桐岑城 등을 공격해 왔다. 유신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그것을 막았다. 백제 군사는 매우 날쌔어, 苦戰하였고 이기지 못해 사기가 떨어지고 힘이 다하였다. …… 군사들이 세 사람[丕寧子, 擧眞, 合節]의 죽음을 보고는 깊이 느껴 다투어 나갔다. 가는 곳마다 적의 칼날을 꺾고 진을 함락하였으며 적병을 대패시켜 3천여 명을 목베었다. 유신이 세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 옷을 벗어 덮어주고 매우 슬피 울었다. 대왕이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로써 反知山에 합장하였다. 妻子와 九族에게는 은혜로운 상을 더욱 풍부하게 내려주었다.

후대의 사료이긴 하나 진덕왕 원년(647) 백제의 군사가 茂山·甘勿·桐岑을 공격해왔을 때 유신의 군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유신은 丕寧子를 불러 전황의 어려움을 말했다. 그러자 비령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맹세하고, 이후 적진에 나아가 백제군과 싸우다 죽었는데, 그 아들 擧眞과 奴인 合節도 힘써 싸우다 사망하였다. 진덕왕은 이들의 시신을 거두어 예로써 反知山에 합장한 뒤 妻子와 九族에게 恩典을 내렸다.<sup>99)</sup> 이 사례는 전투에서 힘껏 싸우다 사망하여 본보기가 된 경우, 그 처자뿐만 아니라 친족에게도 은전을 내리는 관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적성비에 기록된 사람들 또한 也尔次와 친족 관계인 사람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적성비에 은전을 받은 사람 중 玁狁婁 下干支나 烏礼兮 撰干支는 처, 자식 등 피상속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냉수리비는 상속 다툼을 판결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적성비는 나라에 공적을 세운 인물들에게 은전을 내린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차이 때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들이 한 혈연집단의 長으로 재산이 가족에게 자연히 승계될 것이기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00)</sup>

그 근거로 적성비에서 떨어져 나온 비편 중 ‘六家’를 주목하였다. ‘六家’에 대해 공훈을 세운 사람이 받은 恩典으로 보기도 했지만,<sup>101)</sup> 은전

99) 『三國史記』 권47, 열전7 비령자.

100) 朱甫墩, 앞의 논문, 1984 : 주보돈, 앞의 책, 2002, 168~169쪽.

을 받은 6개의 혈연집단인 ‘家’로 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①也尔次 가족, ②四年少女의 가족, ③公兄鄒文村<sub>圖</sub>玆婁下干支 가족, 앞부분이 분명하지 않은 ④刀只小女로 끝나는 가족, ⑤烏礼兮撰干支 가족, ⑥弗兮女가 있는 舍五人 가족이 그것이다.<sup>102)</sup> 이것은 이 시기 ‘家’를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가 운영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단위공동체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 단위의 경제공동체 정착은 父에서 子로 가족의 재산이 상속되는 구조를 만들었을 것이다.

적성비가 세워질 6세기 중엽에는 재산취득과 상속 등의 사항은 國法과 赤城佃舍法과 같이 나라 전체 또는 지역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것은 냉수리비에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敎令, 別敎 등으로 법적 절차를 거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냉수리비는 재산의 분쟁에 대한 내용, 적성비는 은전이라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비라는 차이가 있지만, 절거리가 재를 획득하게 된 근거로 법이 아닌 ‘二王敎’를 제시한 것은 적성비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법흥왕 대 율령이 반포됨에 따라 신라의 영역 내 통일적으로 관철되는 법체계가 확립되어 갔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國法과 佃舍法 등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적성비에는 6세기 중반 공훈에 대한 대가로 토지, 가옥 등의 재물을 분여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국법, 또는 적성전사법이라는 법체계를 통해 운영되었다. 또한 재물은 ‘家’를 단위로 父-子로 승계되는 경제적 가족공동체의 구조로 전환된 것을 보여준다.

적성비의 也尔次와 같이 나라에 공훈을 세운 자에게 포상을 내리는 조치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6세기 중엽의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 「황초령신라진흥왕순수비」 등에 이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D. 巡이에 무자년 가을 8월에 영토를 순수하여 민심을 살피 위로하고 선물을 내려주고자 한다. 만약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고 재난의 꾀새

101) 鄭求福, 앞의 논문, 1978, 127쪽.

102) 朱甫墩, 앞의 논문, 1984 ; 주보돈, 앞의 책, 2002, 166~168쪽.

를 살피며, 적에게 용감하고 전쟁에 강하며,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공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을 상으로 더하여 주고 그 공훈을 표창하고자 한다. 수레를 이끌고 나가 10월 2일 계해에 이르러 … 인하여 변방지역을 타일렀다.<sup>103)</sup>

마운령비에는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공훈에 대해 몇 가지 열거하였다. 忠信과 精誠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 機微를 잘 살피거나, 적에게 용감하고 전쟁에 강하거나,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공이 사람들에게 賞과 爵을 내려 표창할 것임을 밝혔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새로 정복한 지역을 巡狩하면서, 그 지역민을 新羅民으로 내재화하였다.<sup>104)</sup> 이러한 시책은 國法 등 법적 테두리 속에서 운용되었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6세기 신라의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유교 이념과 宗法에 의한 가족의 위계 확립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면서, 냉수리비와 적성비에 보이는 재산의 취득과 상속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냉수리비에 재산취득과 상속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으로 ‘其第兒斯奴’를 규정한 것은 당시 상복법을 제정한 것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또 냉수리비에서는 피상속인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지만, 적성비에서는 사망한 아이차의 경우만 처와 자식을 밝혀두었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것은 적성비 단계에 이르면,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단위공동체의 확립과 그 범위 내에서의 상속이 관례화

103)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 “於是歲次戊子, 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以欲勞賚, 如有忠信, 精誠, 才超, 察厲, 勇敵, 強戰, 爲國盡, 節有功之徒, 可加賞爵, 以章勳勞. 引駕日行, 至十月二日癸亥, 向涉是達, 非里固廣, 因諭邊界矣.”

104) 金瑛河, 「新羅時代 巡守의 性格」, 『民族文化研究』 14, 1979; 盧鏞弼, 『新羅眞興王 巡狩碑研究』, 一潮閣, 1996; 노중국, 「신라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과 巡狩」, 『鄉土서울』 81, 2012; 박초롱, 「진흥왕순수비 건립의 의의」, 『사학연구』 118, 2015, 69~70쪽.



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절거리가 재물을 취득하는 근거가 된 ‘二王敎’는 신라에 유교 이념이 도입됨에 따라 가족 관계나 이와 관련된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하교로 파악하였다. 실성왕, 눌지왕 대 敎令으로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중앙의 지배력이 신라의 영역 내에 통일적으로 전달, 집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 珍而麻村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중앙에서 이를 해결해 준 것이다.

냉수리비에 보이는 절거리의 재산 관련 분쟁은 지증왕 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인 지증왕 5년(504), 상복법이 제정, 반행된 사실이 주목된다. 상복법은 유교이념과 종법의 가족원리를 바탕으로 가족과 친족 사이의 位階와 親疏를 服期와 喪裝을 통해 드러냈다. 특히 종법의 원리에서 父-長子로 이어지는 부계적 관계를 중심으로 妻와 庶子は 부차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상속에서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말추와 사신지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유교의 종법적 가족 질서 및 이와 관련된 재산상속 규정이 신라 중앙과 지방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냉수리비에 절거리의 재물을 상속받는 ‘其第兒斯奴’는 절거리의 아우, 또는 아우의 아들로 보기도 하지만, 당시 신라에서 유교 이념과 상복법이 제정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절거리의 아들로 추정된다. 또 상복의 규정에 ‘爲人後者’는 참취삼년복을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後嗣로 들어간 사람이 後嗣로 삼아준 아버지를 위해 三年喪을 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入後한 경우 實子로 대우받았음을 보여준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재산 상의 분쟁을 막고자, 官으로부터 ‘許與斜給立案’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냉수리비는 중앙에서 판결을 내려 절거리가 재물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그다음 피상속인도 분명하게 지정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말추와 사신지에게는 앞으로 문제 삼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이 사실은 촌주를 통해 다시 최종 확인되어 비에 새겨 지역에 세워졌다. 이는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법적 절차로 볼 수 있다. 먼저 敎令

을 통한 국가의 판결,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의 하급 관료층인 典事人의 전달과 집행, 지방 村主의 최종 처리와 확인이 그것이다.

촌주는 촌 단위에서 행정적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아마도 절거리는 촌주에게 분쟁의 판결을 요청하였고, 이것은 촌주에 의해 중앙에 전달되어 중앙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뒤 절거리와 다툼의 당사자인 말추와 사신지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촌주가 최종 확인을 했던 것은 조세 수취의 업무가 촌주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적성비는 신라의 적성 공략에 협조한 아이차와 혈연관계에 있거나 적성 공략에 일정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포상으로 은전을 내린 사실을 기록하였다. 적성비에는 國法, 赤城佃舍法 등 전공에 대한 은전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냉수리비에서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 ‘二王敎’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七王等’의 ‘共論敎’을 통해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적성비에서는 國法에 따라 분여하고, 赤城佃舍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포상 및 은전과 관련된 법체계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적성과 같이 새로 정복한 지역에서 國法을 말한 것은 나라 안에 은전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통일된 법체계를 운영한 것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觀堂集林』, 『三國史記』, 『三國遺事』, 『資治通鑑』, 『太平御覽』, 『隋書』, 『周書』, 『北史』.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1992.

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 『韓國木簡字典』, 2011.

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김용천·장동우, 『中國古代 喪服의 制度와 理念』, 동과서, 2007.

김창석, 『왕권과 법』, 지식산업사, 2020.

金哲垞,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盧鏞弼,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一潮閣, 1996.

武田幸男, 『新羅中古期の史的研究』, 勉誠出版, 2020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장창은, 『신라 상고기 청치변동과 고구려관계』, 신서원, 2008.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2006, 태학사.

주보돈,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2002.

韓國古代史研究會編,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孔炳奭, 「先秦儒家的 喪服制度」, 『東洋禮學』 30, 2013.

김덕원,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국학연구』 15, 2009.

金永萬, 「迎日冷水里新羅碑의 語文學的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金瑛河, 「新羅時代 巡守의 性格」, 『民族文化研究』 14, 1979.

金昌鎬, 「迎日冷水里新羅碑의 建立 年代」,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金哲垞,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 1, 1968.

南豐鉉, 「丹陽赤城碑의 解讀 詩攷」, 『史學志』 12, 1978.

노중국, 「신라 中古期 儒學 사상의 수용과 확산」, 『大丘史學』 93, 2008.

노중국, 「신라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과 巡狩」, 『鄉土서울』 81, 2012.

文嘯鉉,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部の 性格과 政治運營問題」,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 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1979.
- 문혜경, 「고전기 아테네에서 재산상속에 관한 형제-자매 관계」, 『大丘史學』 74, 2004.
- 박초롱, 「진흥왕순수비 건립의 의의」, 『사학연구』 118, 2015.
- 박초롱, 「지증왕-법흥왕대 왕실 상장례 변화와 그 의미 - 지증왕대 상복법 제정·반행(頒行)문제를 중심으로 -」, 『韓國思想史學』 62, 2019.
- 朴香美, 「迎日冷水里碑를 통해 본 5~6世紀 新羅의 財産相續」, 『慶北史學』 17·18, 1995.
- 邊太燮, 「丹陽眞興王拓境碑의 建立年代와 性格」, 『史學志』 12, 1978.
- 서영교, 「신라 지증왕대 喪服法과 一夫一妻制」, 『역사와 세계』 53, 2018.
- 서지영, 「신라 상고기 즉위의례와 유학」, 『한국학논총』 58, 2022.
- 宣石悅,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官等·官職問題」,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 安秉佑, 「迎日冷水里新羅碑와 5~6세기 新羅의 社會經濟相」,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 양자량, 「6세기 신라 성격에 대한 검토-진흥왕대 비문 분석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53, 2019.
- 여호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2000.
- 여호규, 「신라 냉수리비와 봉평리비의 단락구성과 서사구조」, 『역사문화연구』 69, 2019.
- 李基白, 「丹陽赤城碑 發見의 意義와 赤城碑 王敎事部分의 檢討」, 『史學志』 12, 1978.
- 李道學, 「高句麗의 落東江流域進出과 新羅·加倭經營」, 『國學研究』 2, 1988.
- 李宇泰, 「迎日冷水里碑의 再檢討 - 財의 性格을 中心으로」, 『新羅文化』 9, 1992.
- 李宇泰, 「丹陽 新羅 赤城碑 建立의 背景-也尔次의 功績과 恩典의 性格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8, 1992.
- 李鍾旭, 「迎日冷水里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統治體制」,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상, 一潮閣, 1994.
- 李賢惠,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 - 4~5세기 新羅社會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8, 1991.
- 李春寧, 「韓國農業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III(科學·技術史)』, 1968.

- 이현주, 「신라 유교가족윤리의 도입과 변용-상복법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59, 2021.
- 임평섭, 「신라 지증왕의 정국운영과 「포항냉수리신라비」:5세기말~6세기초 신라의 대내외 정세변화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58, 2021.
- 장창은,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3, 2004.
- 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 4, 1990.
- 전덕재, 「신라 中古期 結負制의 시행과 그 기능」, 『韓國古代史研究』 21, 2001.
- 鄭求福, 「丹陽新羅赤城碑 內容에 대한 一考」, 『史學志』 12, 1978.
- 鄭求福, 「迎日冷水里新羅碑의 金石學的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3, 1990.
-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1989.
- 조경란, 「영일냉수리비문에 보이는 敎의 성격과 구조」, 『한국고대사탐구』 4, 2010.
- 朱甫噉, 「丹陽新羅赤城碑의 再檢討: 碑文의 復元과 分析을 中心으로」, 『慶北史學』 7, 1984.
- 朱甫噉,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基礎的 檢討」, 『新羅文化』 6, 1989.
- 崔光植, 「영일 냉수리비의 석문과 내용분석」, 『三國遺事의 現場的 研究』, 신라문화 선양회, 1990.
- 한영하, 「신라 상대의 王命과 “國法”의 성립 과정」, 『역사와 담론』 85, 2018.
- 홍승우,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Abstract

## Acquisition and Inheritance of Property of Silla in the 6th Century

Seo, Ji-young

The mourning law(喪服法) was enacted and promulgated in the fifth year of King Jijeung'. Based on Domestic Relations Law(宗法) of Confucianism(儒教), the mourning law represente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kinship ties following the old and the young(長幼), preciousness and vulgarity(尊卑), and succession(繼承) within the kinship group. Domestic Relations Law(宗法) established the status of the head of the family and the first son within the kinship group, and it would have some influence on inheritance. The dispute over Jeolgeoli(節居利) in the Naengsu-ri Stone Monument was caused by changes in the clan relations of Confucianism. Gijeasano(其第兒斯奴), mentioned as the next heir after Jeolgeori, was “the son of the family Sa-no(斯奴),” which means that the fortune of the 父 will be passed down to the son. The Naengsu-ri Stone Monument depicts a unique situation that resolves economic disputes, but we can see that property inheritance was confirmed by law(教令). In other words, the acquisition and confirmation of property went through a three-step procedure of central judgment, execution of central Jeonsain(典事人), and confirmation of Chon-ju(村主). In the case of the late sixth-century Jeokseong Monument, property certification was based on a law that applied uniformly across the entire country, such as Jeogseongjeonsa'law(赤城佃舍法), and a law for the specific region.

Furthermore, the family composed of parents-children(父母-子女) became an economic unit, and property inheritance was naturally made from father(父) to son(子) in this family. However, because the Jeokseong Monument represents a situation where remuneratory sanction(恩典) was received in exchange for contribution(功績), it may be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typical case of property acquisition, but we can identify property acquisition and a case of certification through silver.

**keywords :**

Pohang Naengsu-ri Stone Monument, Danyang Jeokseong Monument, King Jijeung, Domestic Relations Law(宗法), Mourning law(喪服法), Jeogseongjeonsa'law(赤城佃舍法)

